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급”

(광주~순천)

“82년간 방치 지역차별 사례” 지적
1000만명 거주·관광·산업 클러스터
남부권 신경제권 형성 ‘균형발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광주·전남·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송정~전남 순천 간 경전선 직선 전철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주·전남·부산·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22 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신

민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 김철수 한국교통대 교수, 정현영 부산대 교수, 한현목 세계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남해안 고속화 철도사업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며 “이제 이 퍼즐을 맞춰 넣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82년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고 방치된 경전선 광

주~순천 구간은 대표적인 지역차별 사례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KTX가 운행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광주~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제공될 것”이라며 “남부경제권 기반구축과 동서통합으로 국가 재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남해안 경제권에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남해안 신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전철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전철화사업은 유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논리에 막혀 수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진도군, 지방채 94억원 조기 상환

민선6기 순채무 152억 전액 상환

진도군이 올해 3월 지방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민선 6기 152억원이었던 순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군비 부담금이 높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해 빚 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58억원, 교부세 감액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올해 현재 순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군은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개혁을 단행한 결과, 당초 상환기간인 2027년 보다 9

년이나 앞당기고 이자액 등을 절감해 재정수입 증대 성과를 도출해 냈다.

2018년 기준 7.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억원이 늘어난 4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11년 2,387억원이던 진도군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 창근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한 3133억원을 편성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우드랜드

장흥군 억불산에 75억 규모 ‘농촌테마공원’

농식품부 신규공모사업 최종 선정

장흥군 억불산에 75억원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농촌테마공원조성 신규공모사업에 ‘장흥 농촌테마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지난 17일 1차 현장확인, 23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장흥군을 2019년도 농촌테마공원 사업지로 낙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장흥군은 국비 등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천년을 이어갈 생명의 씨앗을 정남진에 담다”를 주제로 내세운 장흥 농촌테마공원은 산, 들, 바다 등 장흥의 3향을 바탕으로 한다. 18만7432㎡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는 테마공원에는 약선재료·표고버섯·무산김 체험장, 유기농 체험농장, 계절초화원, 수상안전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데에는 편백숲 우드랜드라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점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을 내세운 것이 큰 몫을 했다.

우드랜드가 갖고 있는 휴식, 치유의 자원과 농촌테마공원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잠시 앉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억하자

추모조형물 ‘오월결상’ 설치

전남 목포역 광장·서울 기독교회관

‘잠시 앉아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끈 열사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자’ 광주항쟁과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투쟁,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를 기리는 추모조형물 ‘오월결상’이 전남 목포와 서울에 설치된다.

올해 1월 15일 부산 도심에 설치한 1호 오월결상 이후 4개월 만이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인 오는 18일 목포역 광장에 2호 오월결상을 세운다.

오월결상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잠시 앉아 사색하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의자 모양으로 만든다.

건축가 양수인씨가 설계한 2호 오월결상은 정부가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은 5·18 희생자 164명을 형상화한 기둥이 도넛 모양 의자 상단을 떠받든다.

5·18희생자의 헌신으로 민주화를 이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 설치하는 3호 오월결상은 김의기 열사를 기억하



목포역 광장에 설치 예정인 오월결상 조감도

며 30일 설치한다.

김 열사는 만 21살 나이로 서강대학교 재학생이었던 1980년 5월 30일 5·18 희생자 넋을 기리고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며 이 자리에서 투신했다.

5·18재단과 오월결상추진위원회는 설치 장소가 지닌 역사 의미에 따라 다른 디자인으로 결상을 설계하고 있다.

현장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3호 오월결상은 작가 선정과 디자인이 기획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재단과 오월결상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녀상처럼 5·18

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으로써 전국 100여곳에 오월결상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월결상추진위는 서울광장 또는 광화문광장 등에 새로운 오월결상을 세우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제작과 설치를 위한 시민 모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30여년 전 민주항쟁을 이끈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를 기리며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인근에 1호 오월결상을 설치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 주택가격 지난해 보다 ‘5%’ 상승

광주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5% 넘게 상승했다. 특히 동구의 주택가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개별주택은 전년 8만 5162호보다 479호 감소한 8만 4683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62% 상승했다.

구별로는 동구가 7.8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서 남구 7.02%, 광산구 6.77%, 서구 4.16%, 북구 4.09% 순이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구 도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

발되면서 단독 주택은 감소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시 가격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 5가에 소재하는 주택(60억 4000만원)이고, 최저가(339만원)는 동구 학동 소재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고흥소방서

어린이날 119안전체험

고흥소방서는 오는 5월 5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소방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행사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 연기소화기 체험, 퍼즐맞추기 등을 통한 소방안전상식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전남 고흥=김남중 기자